

제 목 일본의 GDP 기준년 개편 결과 및 주요 내용

I 일본 GDP 기준년 개편 결과

□ 일본 내각부는 국민계정의 현실 적합성 등을 제고 하기 위해 2020년을 기준년으로 조정하는 GDP 기준년 개편을 실시*

* '25.12.8일 25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공표시 2020년 기준년 개편을 적용한 지출 부문별 관련 통계를 공표하였으며, 이후 2024년도('24.2Q~'25.1Q) 플로우 계정('25.12.23일 공표) 및 스톡 계정('26.1.20일 공표)을 추가로 공표

○ 금번 개편에서는 기준년 개편에 따른 2020년도 산업연관표 반영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투자, 건설투자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이 반영

(기준년 베이스업 규모 및 비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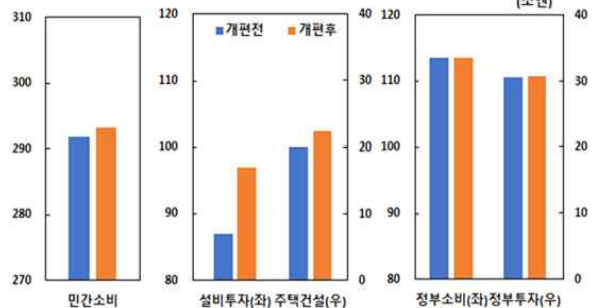
□ 기준년 개편에 따른 2020년 일본 명목GDP 규모는 554.1조엔으로 기존(539.6조엔) 대비 14.4조엔(2.7%) 증가

○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97.0조원으로 개편이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(+10.1조엔, 11.6%)하였으며, 주택건설(22.6조엔, +2.6조엔, 12.4%) 및 민간소비지출(293.3조엔, +1.5조엔, 0.5%)도 증가

기준년 개편에 따른 2020년 명목GDP 변화

(조엔, %)

	개편전	개편후	차이	증가율
국 내 총 생 산	539.6	554.1	14.4	2.7
민간소비지출	291.8	293.3	1.5	0.5
주택건설	20.1	22.6	2.6	12.4
설비투자	86.9	97.0	10.1	11.6
재고증감	-1.3	-1.4	-0.1	7.7
정부소비지출	113.2	113.2	0.0	0.0
공급자보통성	30.4	30.7	0.3	1.0
순수출	-1.5	-1.5	0.0	0.0



자료 : 내각부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최호식 과장

(생산 측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)

□ 산업별 부가가치의 경우 기준년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업, 부동산업, 건설업, 운수·우편업, 제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보건후생, 전문·과학기술·업무지원서비스, 음식·숙박업 등은 감소

○ 전체 GDP 대비 제조업이 20% 내외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순위는 도·소매업에서 부동산업으로 변화

기준년 개편에 따른 2020년 산업별(경제활동별) 부가가치 변화

(조엔, %)

	개편전(A)	개편후(B)	차이(B-A)	비중(개편전)	비중(개편후)
농림수산업	5.8	5.6	-0.2	1.1	1.0
광업	0.4	0.3	-0.1	0.1	0.0
제조업	108.2	109.6	1.4	20.1	19.8
전기·가스·수도	17.3	17.3	-0.0	3.2	3.1
건설업	30.9	33.4	2.5	5.7	6.0
도·소매업	68.8	68.3	-0.5	12.8	12.3
운수·우편업	22.8	25.3	2.5	4.2	4.6
음식·숙박업	9.0	8.4	-0.6	1.7	1.5
정보통신업	27.5	34.1	6.6	5.1	6.1
금융·보험업	22.7	22.0	-0.7	4.2	4.0
부동산업	65.8	70.3	4.5	12.2	12.7
전문·과학기술·업무지원서비스	47.0	46.2	-0.8	8.7	8.3
공무	27.9	27.8	-0.1	5.2	5.0
교육업	19.1	21.2	2.1	3.5	3.8
보건후생·사회사업	44.1	40.3	-3.9	8.2	7.3
기타	20.2	22.8	2.6	3.7	4.1
GDP	539.6	554.1	14.4	100.0	100.0

주 : 1) 개편후 기준

자료 : 내각부

(GDP 성장경로 및 디플레이터 변화)

□ 기준년 개편에 따른 2020년 이후 GDP 성장률 변화를 보면 '21년 및 '22년 성장률이 상향조정 되었으나, 23년 성장률은 하향조정되어 GDP 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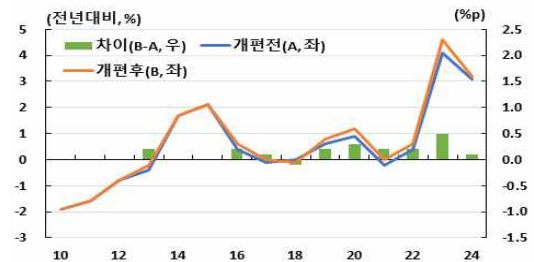
○ 디플레이터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'23년 이후 3~4%를 기록

기준년 개편 전후 연간 성장률 추이



자료: 내각부

기준년 개편 전후 디플레이터 추이



자료: 내각부

II 주요 개편 내용

(소프트웨어 투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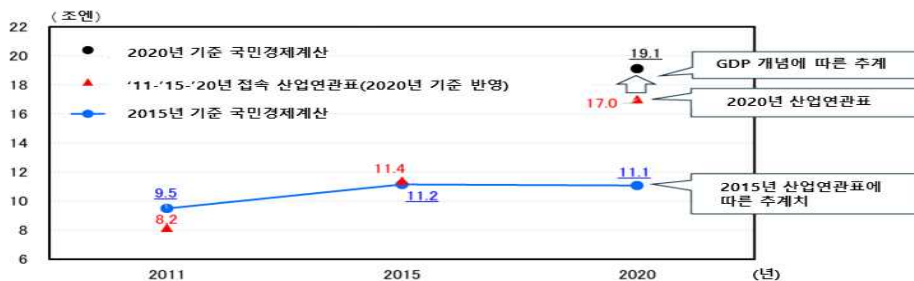
□ 2020년 산업연관표 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투자*를 재추계한 결과(2020년) 개편전 11.1조엔에서 19.1조엔으로 상향조정

* 설비투자 하위항목으로 편제

○ 이는 산업연관표의 기초통계인 '경제센서스-활동조사'의 조사범위가 확대된데 기인

—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사이트 정보를 활용한 모집단 정보의 정확성을 확대하였으며, 매출 정보 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

소프트웨어 투자 관련 개편 전후 비교



자료: 내각부

(부동산 중개 수수료)

- 부동산 중개 수수료* 관련 재추계 결과(2020년) 개편전 2.9조원에서 5.3조원으로 상향 조정

* 국민계정편제 국제기준('08 SNA)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고정자본형성(투자)로 취급되며, 주택투자 및 설비투자의 하위항목으로 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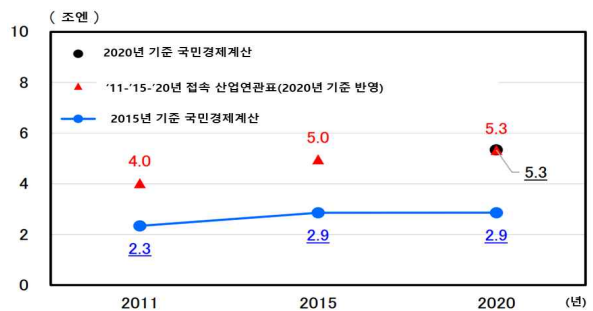
- 기존 단가, 면적 및 호수 등을 통한 추계에서 경제센서스를 통한 추계로 변경하면서 파악 범위가 확대된데 기인

산업연관표의 관련 정보 파악범위 변화¹⁾

		부동산중개		부동산 판매
		임차	매매	
주택	신축	○	X→○	○
	구축	○	○	X→○
비주택		○	○	X→○
토지	택지	X→○	○	대상외
	택지외	X→○	X→○	

주 : 1) 2015년 산업연관표 대비 2020년 산업연관표 상 변화
2) 음영처리된 부분이 부동산중개수수료(투자)에 포함
자료: 내각부

부동산중개수수료(투자) 개편 전후 비교



자료: 내각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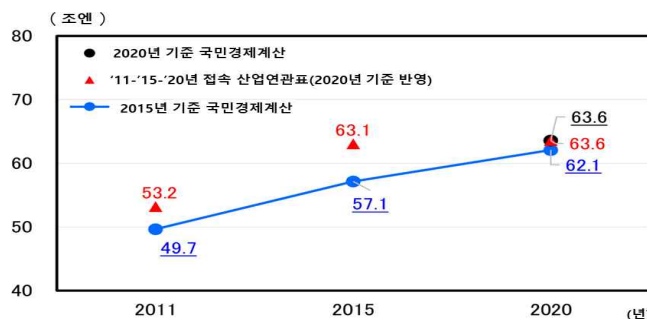
(건설투자 관련)

- 건설투자 관련 재추계 결과(2020년) 개편전 62.1조원에서 63.6조원으로 상향조정

- 건설투자 추계에 기초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「건설공사시공통계」의 결측값 보완을 재검토*함에 따라 반영분이 늘어난 데 기인

* 기존에는 결측값을 0으로 처리하였으나, 동일·유사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수치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

건설 투자 관련 개편 전후 비교



자료: 내각부

(주택임차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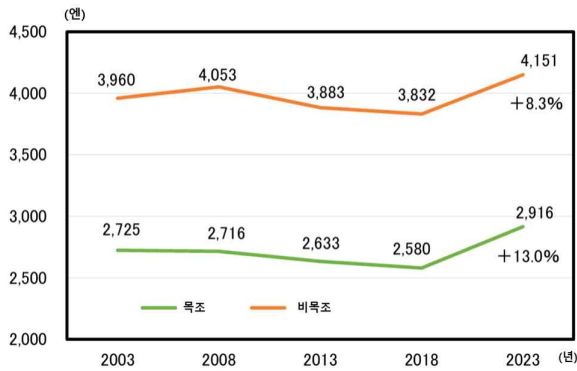
□ 주택임차료* 관련 재추계 결과(2020년) 개편전 62.9조원에서 67.2조원으로 상향 조정

* 민간소비 하위항목으로 편제

○ '23년 주택·토지통계에서 임차료 상승이 반영된 가운데, 임차료 단가 연장 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일부 변경*한데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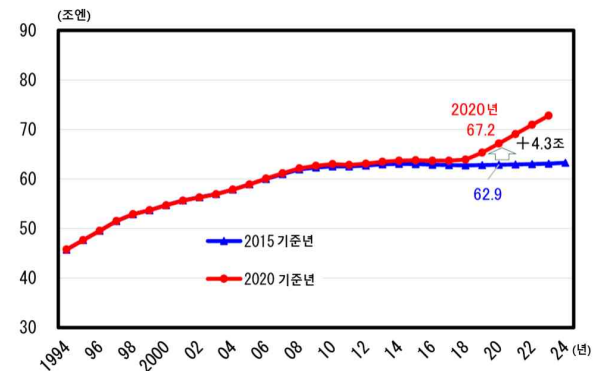
* 임차료 변화의 추세가 변화하는 기간으로 이에 대한 연장 추계를 신중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주택·토지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의 차분으로부터 도출된 추세 반영분을 최근 1기간에서 2기간('13~'18년, '18~'23년)으로 확대

민영임대 주택 임대료¹⁾ 추이



주 : 1) 약0.5평당 임대료
자료 : 총무성 주택·토지통계

주택임차료 개편 전후 비교



자료: 내각부